

한 눈으로 보는 경제			17일
코스피지수	1672.44	↓	-42.42
코스닥지수	514.73	↑	+10.22
환율 (원·달러)	1243.50	↑	+17.50

2020년 3월 18일 수요일 14

비즈 패트론 | '진흙탕 싸움' 한진그룹 경영권 다툼

“권홍사 회장, 한진 명예회장 요구” 진실은?

〈반도건설〉

허위공시·투자위반·주주 규제 등 한진, 금감원에 '3자 연합' 조사요청 상대 압도할 지분 확보 못해 '팽팽'



지주사 한진칼의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한진그룹 경영권 공방이 치열하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왼쪽)과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오른쪽) 사이에서는 '한진그룹에 명예회장직 등을 요구했다'는 진실공방까지 벌어지고 있다. 스포츠동아DB

27일 지주사 한진칼의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한진그룹의 경영권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조원태 회장을 중심으로 한 한진그룹 측과 '3자 주주연합'(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KCGI·반도건설)은 현재 그룹 경영권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금까지는 양측이 자신들이 경영권을 가져야 하는 당위성을 강조하고, 상대방의 경영능력 하자를 지적하는 신경전을 벌였다. 하지만 한진칼 주총이 임박하면서 지난주부터 대한항공 리베이트 수수 의혹, 반도건설 허위공시 논란 등 상대의 법적 위반을 지적하고 나서면서

공방이 살벌해지기 시작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 사이에서는 “한진그룹의 명예회장을 요구했다”는 주장을 두고 진실공방까지 벌어져 진흙탕 싸움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3자 주주연합'의 공세에 반박하는 형태로 맞서던 한진그룹이 먼

저 공세를 펼치기 시작했다. 한진그룹은 16일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지분공시 심사팀)에 '3자 주주연합'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한진칼이 주장하는 '3자 주주연합'의 위반 내용은 반도건설의 허위공시를 비롯해 KCGI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KCGI의 투자목적회사(SPC) 투자 위반, 임원·주주주주 규제 등이다. 한진칼은 이런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과 수사기관 고발이나 통보, 업무정지 및 해임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한진그룹은 반도건설과도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이 투자목적 변경 공시 전 한진그룹에 명예회장직 등을 요구했다는 주장을 두고 날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진그룹은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이 지난해 8월과 12월 조원태 회장을 만나 한진그룹 명예회장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반도건설은

당시 만남은 조원태 회장의 제안으로 성사됐으며 권 회장은 경영참여를 요구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한진그룹은 다시 반도건설 주장을 재반박하고 나서며 맞서고 있다.

현재 조원태 회장이나 '3자 주주연합' 모두 상대를 압도할 지분율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지금까지는 조원태 회장 쪽이 근소한 우위이나 양측 모두 최근 지분율에서 예상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 조원태 회장쪽에서는 당초 우군으로 분류되던 카카오가 지분 일부를 매도하면서 경영권 공방에서 발을 빼는 모양새다. '3자 주주연합' 역시 반도건설이 허위공시 논란으로 인해 의결권을 가진 지분율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27일 주주총회까지 표심을 확보하려는 양측의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카뱅 퍼스트” 구현하겠다” 윤호영 단독대표 체제 확정



카카오뱅크가 17일 윤호영(사진) 단독 대표 체제를 확정했다.

그동안 카카오뱅크는 윤 대표와 이번 4·15 총선에 출마하는 이용우 공동대표가 이끌어왔다. 이 대표가 총선 출마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면서 1월에 물러난 이후 공동대표의 한 자리가 비어 있었다. 카카오뱅크는 윤호영 대표가 카카오뱅크의 혁신과 전략 방향성을 이해하는 최고경영자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대표이사사를 추가로 선임하지 않기로 했다.

윤호영 대표는 대한화재와 에르고 다음 다이렉트를 거쳐 다음 커뮤니케이션과 카카오에서 경영지원부부장 및 부사장을 역임했다. 윤 대표는 “2020년 서비스의 확장과 강화된 고객 경험으로 모바일 금융하면 카카오뱅크를 떠올릴 수 있는 ‘카뱅 퍼스트’를 구현하겠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라이엇, LoL 'TFT 모바일' 출시 PC버전과 크로스플레이도 지원

라이엇게임즈는 리그오브레전드(LoL)의 인기 모드인 '전략적 팀 전투'(이하 TFT)의 모바일 버전(사진)을 20일 출시한다. 라이엇게임즈가 처음 선보이는 모바일게임으로,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에서 내려받아 무료로 플레이 할 수 있다.

TFT는 여덟 명의 플레이어가 챔피언과 아이템을 전략적으로 조합해 진영을 구성하고 최후의 1인이 남을 때까지 난투전을 벌이는 게임이다. 지난 해 선보인 PC버전의 경우 전 세계 유저가 8000만 명에 달한다. TFT모바일은 PC버전과 크로스플레이가 가능하다.

라이엇게임즈는 TFT의 세 번째 시즌 '칼릭시'도 공개했다. 우주와 은하, 그리고 별을 테마로 하는 LoL 챔피언, 꼬마 전설 이(인게임 아바타) 등이 새롭게 등장한다.

마크 메릴 라이엇게임즈 공동 회장은 “10여 년 전 LoL을 만들 당시 이렇게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게 될 줄 상상도 못했다”며 “TFT모바일을 통해 플레이어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대형 SUV 안부러워”…기아차, 4세대 쏘렌토 출시

신규 플랫폼 적용…넓은 실내 눈길 자동제동 시스템·기아페이 첫 탑재



기아자동차는 17일 온라인 론칭 토크쇼를 열고 신형 쏘렌토 판매를 시작했다. 모델들이 4세대 쏘렌토 옆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 기아자동차

기아자동차는 17일 온라인 론칭 토크쇼를 열고 4세대 쏘렌토 판매를 시작했다. 쏘렌토급의 볼륨 모델이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출시 방식을 택한 것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다.

4세대 쏘렌토는 신규 플랫폼을 적용하고 최적의 레이아웃으로 상위 차급인 대형 SUV와 비교해 경쟁력 있는 넓은 실내공간을 완성했다. 휠베이스가 35mm 늘어났으며 2열 무릎 공간과 적재 공간도 커졌다. 특히 대형 SUV에 적용하던 2열 독립시트를 도입했다.

디젤 모델은 강화된 배출가스 규제에 맞춘 스마트스트림 D2.2 엔진에 민첩한 변속 응답성과 부드러운 변속감을 함께 갖춘 스마트스트림 습식 8단 DCT를 현대차그룹 최초로 적용해 연비와 성능을 모두 잡았다. 최고출력 202마력, 최대토크 45.0kgf·m이며 복합연비는 14.3km/L(5인승,

18인치 휠, 2WD기준)다. 새 첨단 기능도 매력적이다. 현대차그룹 최초로 다중 충돌방지 자동제동 시스템(MCB)을 적용해 2차 사고 피해에 대비했고, 제휴된 주유소나 주차장에서 내비게이션 화면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기아페이(KIA PAY)도 최초로 적용했다.

사전 예약만 1만3000대를 기록하며 벌써부터 인기가 뜨거운 4세대 쏘렌토 디젤 모델의 가격은 2948만~3817만 원(국세 1.5% 기준)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경제현장.jpg

“유럽 감성 플라워 마켓으로 오세요”



롯데백화점이 봄 시즌을 맞아 5월 21일까지 서울 소공동 본점 지하 1층 코스모너지 광장에서 '블로섬 마켓 By 소공원'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유럽 감성의 플라워 마켓으로 다채로운 색감의 꽃과 반려식물을 선보인다. 정정욱 기자, 사진제공 | 롯데백화점

늘어나는 집콕족…다시 ‘대용량’ 전성시대

대용량 제품·창고형 온라인몰 매출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대용량 제품의 인기가 되살아 나고 있다.

그동안 대용량 상품은 1인 가구의 증가로 소포장·날개 상품에 시장 주도권을 내어줬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상황이 달라졌다. 2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 홈플러스 창고형 스페셜매장인 더클럽 온라인몰의 매출은 1월과 비교해 227% 증가했다. 1월에 셀 명절 특수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상승 폭이다. 코로나19로 평소보다 많은 양의 식재료와 생필품을 구입하려는 고객들이 대용량 상품이 저렴한



홈플러스 더클럽 온라인몰의 대용량 상품을 소개하는 모델들. 사진제공 | 홈플러스

창고형 온라인몰로 몰렸다는 분석이다.

홈플러스는 이에 맞춰 18일까지 더클럽 온라인몰에서 대용량 생필품 할인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온라인 배송 지원을 대비해

20개의 오프라인 스페셜 점포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는 픽업 서비스도 마련했다. 송승선 홈플러스 모바일사업부문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식재료와 생필품의 장기 저장을 위한 소비가 커졌다”며 “대용량 생필품 물량 확보와 합리적인 가격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다.

뷰티업체도 손 세정 제품을 중심으로 대용량 상품 출시를 늘리고 있다. 네이처리 퍼블릭은 손소독제 ‘핸드 앤 네이처 세니타이저 젤’을 대용량으로 내놓았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손소독제를 대용량으로 출시해 달라는 고객 요청에 착안했다. 300mL 용량으로 기존 제품(30mL)보다 양을 10배 늘렸다. 조 말론 런던도 시그니처 상품인 ‘라임 바질 앤 만다린 바디 앤 핸드 워시’를 500mL 대용량 한정판으로 선보였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서울관광재단, MICE업체 3단계 지원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MICE업체를 돕기 위해 기존 ‘MICE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코로나19 긴급 대응센터’로 전환했다. 우선 코로나19 예방수칙 다국어 홍보물을 배포하고 방역물품(마스크, 손소독제)을 확보해 배포하고 있다. 2단계로 MICE 기업체들에게 노무·세무·법무 분야 전문 컨설팅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코로나19 피해 특별지원금 신청 안내 및 서류 작성도 돕고 있다. 3단계로는 종사자 범정부무교육 무상지원을 2회로 확대하고, 코로나19 피해 지원 홍보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다. 김재범 기자

편진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